

차례

고산구곡가	3
광문지전	6
김월전	10
상사별곡 & 왜송설	14
역사	19
운영전 & 동승	23
정난감 도시	28
전원사시가	32
항선감의록	34
초식	38

Final &
Readings

고산구곡가

자연친화는 자주 나오는 컨셉이며, 유교적 관념에 대해서 설파하는 것도 자주 나오는 컨셉이다. 이는 지난 6월의 '한겨십팔곡'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유교적 관념과 도교적 관념이 충돌 및 융화라는 내용은 출제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산구곡가」는 작가가 주희의 「무이도가」에 영향을 받아 창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1수〉의 ‘무이를 상상하고’에서 ‘무이’는 주희가 정사(精舍)를 짓고 강학과 수양을 했던 무이산 일대를 의미한다. 이 작품을 읽어 보면 특히 〈제1수〉와 〈제6수〉가 시상 전개상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수〉와 〈제6수〉를 비교하면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장이 ‘허리라’라는 어절로 끝맺는다는 점이다. 이는 「고산구곡가」의 나머지 8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제1수〉와 〈제6수〉만의 특징인데, 여기서 ‘-리라’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제1수〉와 〈제6수〉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장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제1수〉와 〈제6수〉는 모두 구체적 시간성이 배제된 일반적 언술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산구곡가」는 대부분 계절 또는 하루의 시간성을 매개로 제시된다. 그런데 〈제1수〉와 〈제6수〉에서는 계절적 배경이나 시간적 배경을 알려 주는 시어나 시구를 찾을 수 없다. 이는 구체적 시간성이 배제된 일반적 언술을 통해 ‘강학’과 ‘영월음풍’이 화자의 삶의 모든 시간대에 해당하는 사실임을 드러내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셋째, 〈제1수〉에서는 강학의 대상인 ‘벗님’이 등장하고 있으나, 〈제6수〉에서는 ‘벗님’이 등장하지 않는다. 강학은 대상을 필요로 하지만 영월음풍은 굳이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몇 가지 점을 고려할 때 「고산구곡가」의 내면적 구조는 〈제1수〉부터 〈제5수〉까지는 화자의 복거를 계기로 벗들이 모여드는 과정과 강학의 즐거움에 주안점을 두어 노래한 내용으로, 〈제6수〉부터 〈제10수〉까지는 화자의 영월음풍에 주안점을 두고 노래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제1수〉에서 〈제5수〉까지는 ‘사름’과 ‘벗님’에 관련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제1수〉에서는 자신의 복거를 계기로 자신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벗들이 모여들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제3수〉에서는 봄이 저물어 가는 화암의 풍경을 배경으로 종장의 ‘알기 흔들 엇더허리’라는 의문형 표현을 통해 아직도 고산구곡에서 추구하는 학주자의 삶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려는 의도를 노래하고 있다. 「고산구곡담기(高山九曲潭記)」에 의하면 “취병 앞에 조그만 들이 있어 농사를 짓는다. 들 가운데 반송이 한 그루 있는데 그 아래에 수백 인이 앉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제4수〉의 함의는 고산구곡에서 추구하는 학주자의 삶이 고산구곡에 모여든 많은 벗에게 확산됨을 보는 화자의 감탄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시원한 바람이 부는 반송 아래에서 화자가 제자들에게 강학하며 감탄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

〈제6수〉를 기점으로 시상이 전환되는데, 〈제6수〉부터 벗의 존재는 사라지고 〈제8수〉의 ‘혼즈 안즈 서 집을 닛고 잇노라’와 같이 ‘혼즈’가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제7수〉와 〈제8수〉는 화자의 영월음풍 행위를 구체화해서 다루고 있다. 황혼에 낚싯대를 메고 달을 이고 돌아오는 모습이나 한암에 홀로 앉아서 풍암의 추색(秋色)을 즐기는 모습에서 이를 느낄 수 있다. 마지막 〈제10수〉는 작품 뒷부분 다섯 수의 마무리이면서 작품 전체의 결사이기도 하다.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유인은 볼 것이 없다고 하지만 화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보이고 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제10수〉는 화자가 영월음풍을 통해 자연을 즐기는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것임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고산 구곡담(高山九曲潭)을 ㉠사름이 모로더니
주모 복거(誅茅卜居)*하니 ㉡벗님닌 다 오신다

어즈버 무이(武夷)를 상상하고 학주자(學朱子)를 흐리라 <제1수>

이곡(二曲)은 어딤기고 화암(花巖)의 춘만(春滿)커다
 벽파(碧波)의 솟출 띄워 야외로 보너로라
 사름이 승지(勝地)를 모로니 알기 흔들 엇더허리 <제3수>

삼곡(三曲)은 어딤기고 취병(翠屏)에 님 퍼졌다
 녹수(綠樹)에 산조(山鳥)는 하상기음(下上其音)* 흐는 적의
 반송(盤松)이 바람을 바드니 녀름 경(景)이 업세라 <제4수>

오곡(五曲)은 어딤기고 은병(隱屏)이 보기 조희
 수변 정사(水邊精舍)는 소쇄흠도 가이업다
 이 중에 강학(講學)도 흐려니와 영월음풍(詠月吟風) 흐리라 <제6수>

육곡(六曲)은 어딤기고 조협(釣峽)에 물이 넘다
 ㉠나와 고기와 뉘야 더욱 즐기노고
 황혼의 낙딴을 메고 대월귀(帶月歸) 흐노라 <제7수>

칠곡(七曲)은 어딤기고 풍암(楓巖)에 추색(秋色) 조타
 청상(淸霜)이 엷게 치니 절벽(絶壁)이 금수(錦繡)로다
 한암(寒巖)의 혼즈 안즈셔 집을 닛고 잇노라 <제8수>

구곡(九曲)은 어딤기고 문산(文山)의 세모(歲暮)커다
 기암괴석(奇巖怪石)이 눈 속의 못쳐세라
 ㉡유인(遊人)은 오지 아니흐고 볼 것 업다 흐더라 <제10수>

- 이이, 「고산구곡가」

*주모 복거: 살 만한 터를 가려 정하고 풀을 베어 집을 짓고 살아감.
 *하상기음: 새가 오르내리며 우는 것.
 *소쇄흠: 기운이 맑고 깨끗함.

Final &
Readings

광문자전

작가는 "광문은 명성이 실제보다 훨씬 더 컸다. 실제로는 추하고 보잘 것 없는 모습이지만, 성품과 행적으로 나타난 명성은 대단했다"고 말하며, 당시 양반들의 사고 팔기 어지러운 상황을 비판했다. 고전작품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정 인물의 다층적 모습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출제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광문(廣文)이라는 자는 거지였다. 일찍이 종루(鐘樓)의 저잣거리에서 빌어먹고 다녔는데, 거지 아이들이 광문을 추대하여 꽤거리의 우두머리로 삼고, 소굴을 지키게 한 적이 있었다. 하루는 날이 몹시 차고 눈이 내리는데, ㉠거지 아이들이 다 함께 빌러 나가고 그중 ㉡한 아이만이 병이 들어 따라가지 못했다. 조금 뒤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며 숨을 몰아쉬는데 그 소리가 몹시 처량하였다. 광문이 너무도 불쌍하여 몸소 나가 밥을 빌어 왔는데, 병든 아이를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벌써 죽어 있었다.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광문이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다 함께 광문을 두들겨 쫓아내니, 광문이 밤에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집 개를 놀라게 하였다.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다 꿩꿩 묶으니, 광문이 외치며 하는 말이,

“나는 날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온 것이지 감히 도적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영감님이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저자에 나가 알아보십시오.”

하는데, 말이 몹시 순박하므로 집주인이 내심 광문이 도적이 아닌 것을 알고서 새벽녘에 풀어 주었다. 광문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떨어진 거적을 달라 하여 가지고 떠났다. 집주인이 끝내 몹시 이상히 여겨 그 뒤를 밟아 멀찍이서 바라보니,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수표교(水標橋)에 와서 그 시체를 다리 밑으로 던져 버리는데, 광문이 다리 속에 숨어 있다가 떨어진 거적으로 그 시체를 싸서 가만히 짊어지고 가, 서쪽 교외 공동묘지에다 묻고서 울다가 중얼거리다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집주인이 광문을 붙들고 사유를 물으니, 광문이 그제야 그전에 한 일과 어제 그렇게 된 상황을 낱낱이 고하였다. 집주인이 내심 광문을 의롭게 여겨, 데리고 집에 돌아와 의복을 주며 후히 대우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광문을 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천거(薦擧)하여 고용인으로 삼게 하였다.

오랜 후 어느 날 그 부자가 문을 나서다 말고 자주자주 뒤를 돌아보다, 도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자물쇠가 걸렸나 안 걸렸나를 살펴본 다음 문을 나서는데, 마음이 몹시 미심쩍은 눈치였다. 얼마 후 돌아와 깜짝 놀라며, 광문을 물끄러미 살펴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다가, 안색이 달라지면서 그만두었다. 광문은 실로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날마다 아무 말도 못 하고 지냈으며, 그렇다고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가지고 와 부자에게 돌려주며,

“얼마 전 제가 아저씨께 돈을 빌리러 왔다가, 마침 아저씨가 계시지 않아서 제멋대로 방에 들어가 가져갔는데, 아마도 아저씨는 모르셨을 것입니다.”

히는 것이었다. 이에 부자는 광문에게 너무도 부끄러워서 그에게,

“나는 소인이다. 장자(長者)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 나는 앞으로 너를 볼 날이 없다.”

하고 사죄하였다. 그러고는 알고 지내는 여러 사람들과 다른 부자나 큰 장사치들에게 광문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두루 칭찬을 하고, 또 여러 종실(宗室)의 빈객(賓客)들과 공경(公卿) 문하(門下)의 측근들에게도 지나치리만큼 칭찬을 해 대니, 공경 문하의 측근들과 종실의 빈객들이 모두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밤이 되면 자기 주인에게 들려주었다. 그래서 두어 달이 지나는 사이에 사대부까지도 모두 광문이 옛날의 훌륭한 사람들과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당시에 서울 안에서는 모두, 전날 광문을 후하게 대우한 집주인이 현명하여 사람을 알아본 것을 칭송함과 아울러, 약국의 부자를 장자(長者)라고 더욱 칭찬하였다.

이때 돈놀이하는 자들이 대체로 머리꽃이, 옥비취, 의복, 가재도구 및 가옥·전장(田庄)·노복 등의 문서

를 저당 잡고서 본값의 십분의 삼이나 십분의 오를 쳐서 돈을 내주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광문이 빚보증을 서 주는 경우에는 담보를 따지지 아니하고 천금(千金)이라도 당장에 내주곤 하였다.

광문은 사람됨이 외모가 극히 추악하고, 말솜씨도 남을 감동시킬 만하지 못하며,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들락날락하고, 만석희(曼碩戲)를 잘하고 철괴무(鐵拐舞)를 잘 추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서로 욕을 할 때면, “니 형은 달문(達文)이다.”라고 놀려 댔는데, 달문은 광문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광문이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그도 역시 옷을 흘랑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어, 뭐라고 시부렁 대면서 땅에 금을 그어 마치 누가 바르고 누가 틀리다는 것을 판정이라도 하는 듯한 시늉을 하니, 온 저자 사람들이 다 웃어 대고 싸우던 자도 웃음이 터져, 어느새 싸움을 풀고 가 버렸다.

광문은 나이 마흔이 넘어서도 머리를 땅고 다녔다. 남들이 장가가라고 권하면, 하는 말이,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자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그러기에 나는 본래 못생겨서 아예 용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였다. 남들이 집을 가지라고 권하면,

“나는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없는데 집을 가져 무엇하리. 더구나 나는 아침이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저자에 들어갔다가, 저물면 부귀한 집 문간에서 자는 게 보통인데, 서울 안에 집 호수가 자그마치 팔만 호다.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 해도 내 평생에는 다 못 자게 된다.”

하였다.

서울 안에 명기(名妓)들이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광문이 성원해 주지 않으면 그 값이 한 푼어치도 못 나갔다.

예전에 궁중의 우림아(羽林兒), 각 전(殿)의 별감(別監), 부마도위(駙馬都尉)의 청지기들이 옷소매를 늘어 뜨리고 운심(雲心)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다. 운심은 유명한 기생이었다. 대청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거문고를 타면서 운심더러 춤을 추라고 재촉해도, 운심은 일부러 늑장을 부리며 선뜻 추지를 않았다. 광문이 밤에 그 집으로 가서 대청 아래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마침내 자리에 들어가 스스로 상좌에 앉았다. 광문이 비록 해진 옷을 입었으나 행동에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의기가 양양하였다. 눈기는 짓무르고 눈곱이 끼었으며 취한 척 구역질을 해 대고, 헝클어진 머리로 북상투를 튼 채였다. 온 좌상이 실색하여 광문에게 눈짓을 하며 쫓아내려고 하였다. 광문이 더욱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치며 곡조에 맞춰 높으락낮으락 콧노래를 부르자, 운심이 곧바로 일어나 옷을 바꿔 입고 광문을 위하여 칼춤을 한바탕 추었다. 그리하여 온 좌상이 모두 즐겁게 놀았을 뿐 아니라, 또한 광문과 벗을 맺고 헤어졌다.

- 박지원, 「광문자전」

| 보기 |

연암 박지원의 소설 작품들을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간의 모형 정립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해 볼 때 주인공 광문은 비록 사회의 하층민이지만 진실하고 순박한 의인(義人)의 한 전형으로 그려진다. 동시대 사대부들의 비생산적 사고와 불합리한 사회 현실을 끈질기게 응시해 온 작가는 양반 사회의 내부를 조명하여 사대부들의 허구성을 폭로하기도 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의 인간성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어 사회를 비꼬기도 하였다. 작가는, 권력과 재력은 없지만, 인정 많고 신용을 갖추었으며 인간을 인격체로 존중할 줄 아는 광문과 같은 인간형을, 양심을 속이고 권모술수로 연명해 가던 세속적인 사대부와 교체되어야 할 대안적 인물로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광문자전」은 천인(賤人)의 인간성에 나타나는 ‘인(仁)’을 부각하여 사대부들의 위선을 풍자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Final &
Reading

김원전

미상 작가의 전기소설로, 다양한 설화가 결합되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김원의 영웅상을 중심으로 인간 세계, 지하 세계, 용궁 세계를 배경으로 다양한 요소가 전개된다. 전기소설 유형으로 논의되며, 영웅소설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많은 요소들이 중첩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난이도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지문이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승상이 부인과 함께 집에 돌아오니 ㉠내실(內室)이 텅 비어 있었다. 가뜩이나 염려하던 차에 의혹이 가슴에 가득하여 집안 내외인을 다 찾으니, 비복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와서 아뢰되,

“㉡월영각에 난데없는 선동(仙童)이 노복들을 부르시나 차마 혼자 가지 못하여 모두 보온죽, 방 안에 가득한 것은 없어지고 한 소년 선동이 앉아서 ‘아버님께서 집에 돌아와 계시냐.’ 하고 묻사오니, 그 연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승상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그 비복을 데리고 월영각에 가 보니, 한 소년이 승상을 보고 섬돌 아래로 내려와 엎드려 가로되,

“소자는 십 년을 부모 걱정시키던 불초자 원이로소이다.”

승상이 우연히 그 형상을 보고 급히 부인을 청하여 좌정하고 소년을 불러 대청 위에 앉히고 묻기를,

“이 일이 하도 괴이하니 사실을 자세히 이르라.”

하였다.

소년이 아뢰기를,

“오늘 묘시(卯時)에 붉은 도포를 입은 선관이 내려와 이르기를, ‘남두성이 옥황상제께 득죄하여 십 년 동안 허물을 쓰고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였는데, 죄악이 다 끝났다.’ 하고, 허물을 벗겨 방 안에 두고 이르기를, ‘이 허물을 가져갈 것이므로 네 부모께 뵈어 확실한 자취를 알게 하라.’ 하고 갔사오니, 소자가 보자기를 벗고 보온죽 허물이 곁에 놓여 있고 책 세 권이 놓였사오니, 십 년 불효를 어찌 다 아뢰리이까?”

승상이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허물**이 방 안에 놓여 있고 천서(天書) 세 권이 분명히 놓여 있었다. 마음에 크게 놀라고 기뻐하여 소년의 손을 잡고 마음 가득 기뻐하여 말하기를,

“네가 십 년 동안을 보자기 속에 들어 있었으니 무슨 알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니, 자세히 일러서 우리의 의혹을 털게 하라.”

원이 고개를 숙여 재배하고 말하기를,

“소자가 보자기 속에서 십 년 동안 고행하였사오나 아무런 줄을 몰랐사오니 황송함을 이길 수 없사오이다.”

승상 부부가 그제야 원을 안고 등을 어루만지며 가로되,

“네가 어이하어 십 년 고생을 이토록 하였느냐?”

하고 못내 기뻐하였다. 내외 상하(內外上下)며 이웃 사람과 가까운 친척 가운데 누가 기뻐하지 않으리오.

[중략 부분 줄거리] 병마 대원수 도총독이 된 김원은 아귀에게 납치된 세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지하국으로 내려간다. 김원은 자신이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지하국에 내려왔음을 공주에게 밝힌다.

공주가 이 말을 듣고 일변 놀라고 일변 기뻐하며 정신을 수습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대답하기를,

“진실로 이 같을진대 하늘의 해를 다시 보려니와 장군의 재주

가 어떠한지 모르나 저놈의 조화가 무궁하니 어찌 제어하리오?”

원수가 말하기를,

“어쨌거나 변신을 할 것이니 놀라지 마시고 소장의 변신한 것을 은밀하게 가져다가 그놈의 진위를 살피게 수건에 싸서 들여가소서.”

하고 즉시 몸을 흔들어 작은 주먹만 한 수박으로 변신하였다. 공주가 행여 수문 장졸이 알까 두려워서 던지지 수건에 싸서 옆에 끼고 ㉢대아문에 다다르니, 수문장이 군사를 불러 분부하되,

“대장군 분부에 아무 시녀라도 중문 출입에 몸을 뒤져 보라 하여 계시니 명령대로 출입을 자세히 살피라.”

하니, 문졸이 명령을 듣고 일시에 달려들어 몸을 뒤지려 하였다.

공주가 그릇을 땅에 놓고 붉은 치마를 떨치고 가로되,

“빨래하러 나온 시녀가 무엇이 몸에 있으리라 하느냐?”

수문장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고 들어가라 하거늘, 공주가 그제야 그릇을 옆에 끼고 안으로 들어가 ㉣아귀가 자는 혈실에 놓았다. 원수가 그제야 본모습을 내어 문틈으로 엿보니, 아귀가 손에 비수를 들고 머리를 동이고 신음하는 소리가 우레 같고 아홉 입으로 숨 쉬는 바람에 방문이 여닫히니 철마산에서 보던 것보다 더 웅장하였다. 이놈이 비록 흉악하나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며 귀신도 아니므로 신랑이 없어 음양(陰陽)을 몰랐다. 상하 여인을 도적하여 시녀를 삼아 좌우와 거처에 위풍만 보이려 하고 곁에 두고 부리니, 여인이 삼천여 명이요 나졸이 수십만으로서 위엄이 제후의 나라보다 더하였다. 좌우의 궁전을 돌아보니 서쪽 마구간에 **준마 천여 필**이 매여 있고, 동편 곳집에 금은보화가 무수히 쌓였으니 천하에 이름 없는 은근한 치국의 기틀이었다.

원수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이놈을 세상에 머물러 두면 천하에 큰 근심이 되리라.’

백계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 공주께 아뢰기를,

“**독한 술**을 많이 빚어 좋은 안주를 장만하여야 계교를 베풀어이다.”

세 공주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약속을 정한 후에, 십여 일이 지나매 원수가 여러 여자를 청하여 여차여차하게 계교를 갖추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이때 아귀가 칼에 상한 대가리가 거의 다 나오니, 모든 시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 병이 조금 나아오니 4, 5일 후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내 분함을 풀리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술과 성찬을 가지고 권하기를,

“대왕의 상처가 나오시면 첩 등의 복인이 하나이다. 수이 차도를 얻사오면 남두성 잡기야 어찌 근심하리오? 주찬을 대령하였사오니 다 드셔서 첩 등의 우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아귀가 이 말을 듣고 술을 가져오라 하거늘, 여러 여자가 일시에 한 그릇씩 드리니, 아홉 입으로 권하는 대로 먹으니 그 수를 알 수 없었다. 술이 반쯤 취하매 여러 여자가 거짓으로 위로하여 말하기를,

“장군은 잠깐 잠을 청하여 아픔을 잊으소서.”

아귀가 여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잠을 자려 하였다.

막내 공주가 아귀 곁에 앉아 말하기를,

“보검을 놓고 잠을 자소서. 취중에 보검을 한번 휘둘러서 치면 잔명이 죄 없이 상할까 하나이다.”

아귀가 말하기를,

“장수가 잠을 자나 칼을 어찌 손에서 놓으리오마는 혹 실수함이 있을까 하노니, 그 말이 괴이하지 않으니 받아 머리맡에 세워 두라.”

하고 칼을 주었다.

공주가 칼을 놓고 아귀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아귀가 깊이 잠들었거늘, 비수를 가지고 협실로 나와 원수에게 잠들었음을 이르고 함께 후원에 이르러 큰 기둥을 가리키고 말하기를,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 보소서.”

원수가 즉시 비수를 들어 기둥을 치니 기둥이 반쯤 부러졌다. 공주가 크게 놀라서 말하기를,

“만일 그 칼을 썼더라면 성사도 못 하고 도리어 큰 화가 미칠 뻔하였습니다.”

아귀가 쓰던 **비수**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하였다.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공주와 함께 **아귀가 자는 방**에 이르러 문을 가만히 열고 들어가 공주에게 말하기를,

“매운 재를 준비하였다가 아귀의 아홉 머리를 다 베어 내치거든 즉시 재를 온몸에 뿌리소서.”

약속을 정하고 비수를 메고,

“아귀야!”

하고 큰 소리로 불렀다. 아귀가 잠을 미처 깨지 못하여 기지개 켜 때 자세히 보니 온몸에 비늘이 돋혀 있었다. 아귀가 잠을 깨지 못함을 보고 칼을 들어 아홉 머리를 치니 아귀의 아홉 머리가 일시에 떨어졌다. 여러 여자가 일시에 **재**를 끼치니 아귀인들 어찌하리오? 머리 없는 등신이 일어나며 대들보를 받으니 대들보가 부러졌다. 아귀가 한 식경이나 난동을 부리다가 거꾸러지거늘, 공주 등이 아귀가 죽었음을 보고 분분하게 치하하였다.

— 작자 미상, 『김원전』

27

▶ 23051-0087

〈보기〉의 선생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윗글과 ㉠의 공통점을 파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고전 소설에서 변신을 하는 주체는 자아의 속성을 다른 대상에게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고, 도리어 자아의 속성을 다른 대상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변신을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거나 정체를 숨기는 과정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타자의 결정에 따라 변신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

보기

선생님: ‘기존 세계’에 있던 김원은 지하국이라는 ‘다른 세계’에 진입하여 공주를 만납니다. 이처럼 ‘기존 세계’의 존재가 이물(異物)에 의해 강제로 ‘다른 세계’로 끌려가거나, 주인공이 이물에게 붙잡힌 대상을 구출하기 위해 힘든 관문(關門)을 뚫고 여러 과업을 수행하고 돌아오는 구조의 서사는 설화에서 소설에 이르기까지 흔히 나타납니다. ㉠아래 설화를 읽고 윗글과 비교하여 감상해 볼까요?

옛적에는 순창 읍내가 남원군 채계산 밑 적성강가에 가까이 있었다는데 그때 순창의 원님이 내려오면 그날 밤 채계산 금돼지가 내려와서 원님 마누라를 업어 가고 업어 가고 하더라. 그래서 순창골 원으로 온 사람은 모두 마누라를 빼앗겼지. 그런데 어떤 원이 새로 내려와서 그 금돼지가 어디 사는가 알아보려고 원님 마누라 몸עד 명주실 꾸리를 한끝을 매어 놓고 한쪽은 방עד 두고 실이 풀려 나가게 해 놓았다. 한밤중쯤 되니까 금돼지가 내려와서 원님 마누라를 업고 달아났단 말이지. 이쪽에서는 명주실 꾸리를 풀어 주었어. 그리고 나서 이튿날 아침에 원님은 사령들한테 총이랑 칼이랑 창이랑 군물을 들러 갖고 그 명주실 간 데를 좃 좃 따라갔어. 그러니까 실은 채계산 위에 있는 굴속으로 들어가 있더라지 뭐야.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 들어 다니는 문은 큰 독으로 딱 막아 놔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겨우 그 독을 치고 굴안으로 들어가 보니 금돼지는 어디 가고 없고 원님 마누라하고 다른 여자가 아홉이나 있더라. 원님은 자기 마누라랑 여러 여자를 모두 다 구해서 나왔다. 그 굴은 지금도 채계산에 있어. (후략)

- 임석재 채록, 「원님 마누라를 잡아가는 금돼지」

Final &
Readings

성산별곡 & 왜송설

지난 9월 성산별곡을 보자마자 떠오른 지문이다. 한편, 왜송설과 같이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작품은 인간의 다층적 면모를 탐구하는 광문자전의 연장선에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인간이별(人間離別) 만사 중(萬事中)의 독수공방(獨守空房)* 더욱 싫다
 상사불견(相思不見) 이내 진정(眞情) 그 뉘 알리
 맺힌 설움 이렇저렇 헛튼 근심 다 후리쳐 던져두고
 자나 깨나 깨나 자나 임 못 보니 가슴 답답
 ㉠ 어린 양자(樣子)* 고운 소리 눈에 암암 귀에 쟁쟁
 ㉡ 듣고 지고 임의 소리 보고 지고 임의 얼굴
 비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게 해 주소서
 전생차생(前生此生) 무슨 죄로 우리 둘이 생겨나서
 그린 상사(相思) 한데 만나 잊지 말자 백년 기약(百年期約)
 죽지 말고 한데 있어 이별 말자 처음 맹세(盟誓)
 천금 주옥(千金珠玉) 귀 박이고 세상 일불 관계하라*
 근원(根源) 흘러 물이 되어 깊고 깊고 다시 깊고
 사랑 모여 뵈가 되어 높고 높고 다시 높고
 무너질 줄 모르거든 끊어질 줄 게 뉘 알리
 화옹(化翁)조차 시샘하고 귀신(鬼神)조차 희짓는다
 일조 낭군(一朝郎君)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頓絕)하니*
 오늘이나 기별 올까 내일이나 사람 올까
 기다린 지 오래더니 무정세월(無情歲月) 절로 간다
 소년 청춘(少年青春) 다 보내고 옥빈홍안(玉鬢紅顏) 공노(空老)로다*
 오동 추야(梧桐秋夜) 밝은 달에 밤은 어이 수이 가며
 녹음방초(綠陰芳草) 저문 날에 해는 어이 더디 가노
 이내 상사 알으시면 임도 응당 느끼리라
 독수공방 홀로 앉아 반야 잔등(半夜殘燈) 벼슬 삼아
 일촌간장(一寸肝腸) 썩은 물이 솟아나니 눈물이라
 가슴속에 물이 나서 피어나니 한숨이라
 눈물이 바다 되면 배를 타고 아니 가라
 ㉢ 한숨 끝에 불이 나면 임의 옷에 당기리라
 교태(嬌態) 겨워 웃던 웃음 생각하니 목이 멘다
 지척(咫尺) 동방(洞房) 천리(千里) 되어 바라보니 암암(暗暗)하도다
 만첩 천희(萬妾千姬) 그려 낸들 한 붓으로 다 그리라
 날개 돋친 학이 되면 날아가다 아니 가라
 산은 첩첩 고개 지고 물은 중중(重重) 흘러 근원 되니
 천지 인간(天地人間) 이별 중에 나 같은 이 또 있는가

꽃은 피어 절로 지고 해도 다 저물것다
 ㉠초로(草露) 같은 이내 인생(人生) 무슨 죄로 못 죽는가
 바람 불어 ㉡꽃은비 와 구름 끼어 저문 날에
 오락가락 빈방으로 혼자 서서 바장이며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이내 상사 허사(虛事)로다
 공방 미인(空房美人) 독상사(獨相思)는 예로부터 있건마는
 나 혼자 그리는가 임도 나를 그리는가
 노류장화(路柳牆花)* 꺾어 들고 봄빛을 다니는가
 ㉢날 사랑하던 끝에 남 사랑하시는가
 산계야목(山鷄野鶩) 길을 들어 놓을 줄을 모르는가
 노류장화 꺾어 들고 봄빛을 다니는가
 가는 길이 자취 나면 오는 길이 무디리라
 한번 죽어 돌아가면 다시 오기 쉬울런가

- 작자 미상, 「상사별곡(相思別曲)」

- * 독수공방: 아내가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것
- * 양자: 얼굴의 생긴 모양.
- * 세상 일불 관계하라: '세사 일분(世事一分) 관계하라'의 착오인 듯함. 세상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뜻임.
- * 둔절하니: 편지나 소식 따위가 딱 끊어지니.
- * 옥빈홍안 공노로다: 옥 같은 귀밑머리와 붉은 얼굴의 아름다운 젊은이가 헛되이 늙었도다.
- * 노류장화: 아무나 쉽게 꺾을 수 있는 길가의 버들과 담 밑의 꽃이라는 뜻으로, 기생 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 나무는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그 본성이 곧게 마련이다. 따라서 어떻게 막을 수도 없이 생기(生氣)가 충만한 가운데 직립(直立)해서 위로 올라가는 속성으로 말하면, 어떤 나무이든 간에 모두가 그렇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늘 높이 우뚝 솟아 고고(孤高)한 자태를 과시하면서 결코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는 오직 송백(松柏)을 첫손가락에 꼽아야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무들 중에서도 송백이 유독 옛날부터 회자(膾炙)되면서 인간에 비견(比肩)되어 왔던 것이다.

어느 해이던가 내가 한양(漢陽)에 있을 적에 거처하던 집 한쪽에 소나무 네다섯 그루가 서 있었다. 그런데 그 몸통의 높이가 대략 몇 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모두가 작달막하게 뒤틀린 채 탐스러운 모습을 갖추고만 있을 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들도 한결같이 거꾸로 드리워진 채, 긴 것은 땅에 끌리고 있었으며 짧은 것은 몸통을 가려 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휘감겨 서린 모습이 뱀들이 뒤엉켜서 싸우고 있는 것과도 같고 수레 위의 둥근 덮개와 일산(日傘)이 활짝 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는데, 마치 여러 가닥의 수실이 엉겨 붙은 듯 서로 들쭉날쭉하면서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었다.

내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타고난 속성이 이처럼 다를 수가 있단 말인가. 어찌해서 생긴 모양이 그만 이렇게 되었던 말인가.”

하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그 나무의 본성이 그러해서가 아니다. 이 나무가 처음 나왔을 때에는 다른 산에 심어진 것과 비교해 보아도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런데 조금 자라났을 적에 사람이 조작(造作)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것들은 골라서 베어 버리고, 어려서 유연(柔軟)한 가지들만을 끌어와 결박해서 휘어지게 만들었다. 그리 하여 높은 것은 끌어당겨 낮아지게 하고 위로 치솟는 것은 끈으로 묶어 아래를 향하게 하면서, 그 울곧은 속성을 동요시켜 상하로 뺨으려는 기운을 좌우로 방향을 바꾸게 하였다. 그러고는 오랜 세월 동안 그러한 상태를 지속하게 하면서 ㉞바람과 서리의 고초(苦楚)를 실컷 맛보게 한 뒤에야, 그 줄기와 가지들이 완전히 변화해 굳어져서 저토록 괴이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가지 끝에서 새로 싹이 터서 돌아나는 것들은 그래도 위로 향하려는 마음을 잊지 않고서 무성하게 곧추서곤 하는데, 그럴 때면 또 돌아나는 대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베고 자르면서 부드럽게 휘어지게 만들곤 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기이한 소나무가 된 것일 뿐이니, 이것이 어찌 그 나무의 본성이라고야 하겠는가.”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듣고는 크게 탄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 어찌면 그 물건이 우리 사람의 경우와 그렇게도 흡사한 점이 있단 말인가. 세상에서 일찍부터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을 보면, 그 용모를 예쁘게 단장하고 그 몸뚱이를 약삭빠르게 놀리면서, 세상에 보기 드문 괴팍한 행동을 하여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아첨하는 말을 늘어놓아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하여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면서 이를 고상하게 여기기만 할 뿐,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은 알고 있으니, 평이(平易)하고 정직(正直)한 그 본성에 비추어 보면 과연 어떠하다 할 것이며,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한 호기(浩氣)에 비추어 보면 또 어떠하다 할 것인가. 비켓덩어리나 무두질한 가죽처럼 아첨을 하여 요행히 이득이나 얻으려고 하면서, 그저 구차하게 외물(外物)을 따르며 남을 위하려고 하는 자들을 저 왜송(矮松)과 비교해 본다면 또 무슨 차이가 있다고 하겠는가.

아, 사람이나 다른 생물이나 각각 항상 지니고 있는 본성이 있는 만큼, 곧게 잘 기르면서 해침을 당하는 일이 없게끔 한 연후에야 사람이 되고 생물이 된 그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만 본성이 손상을 입고 녹아 없어진 나머지, 이처럼 정상적인 것과는 정반대로 참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으니, 이 어찌 ‘곧게 길러지지 않은 채 살아 있는 것은 요행히 죽음을 면한 것일 뿐이다[罔之生也 幸而免].’라는 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 그리고 보면 저 나무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역시 슬픈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일찍이 산속에서 자라나는 송백을 본 일이 있었는데, 그 나무들은 하늘을 뚫고 곧장 위로 치솟으면서 ㉟뇌우(雷雨)에도 끄떡없이 우뚝 서 있었다. 이쯤 되고 보면 사람들이 그 나무를 쳐다볼 때에도 자연히 우러러보고 엄숙하게 공경심이 우러나는 느낌만을 지니게 될 뿐, 손으로 어루만지거나 노리갯감으로 삼아야겠다는 마음은 별로 들지 않을 것이니, 이를 통해서도 사람들의 호오(好惡)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그 대상을 천하게 여기면서 모멸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속에 있는 반면에,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 내에 덕을 존경한다는 뜻이 들어 있는 개념

이라 하겠다. 대저 그 본성을 해친 나머지 남에게 모멸을 받게 되는 것이야말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한 행동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요, 자기의 본성대로 따른 결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위기지학(爲己之學)의 효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자라면 이런 사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기만 하면 될 것이니, 저 왜송을 탓할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청사(靑蛇, 을사년) 납월(臘月)* 대한(大寒)에 쓰다.

- 이식, 「왜송설(矮松說)」

* 납월: 음력 선달을 달리 이르는 말

| 보기 |

설(說)은 독자의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설득적인 성격의 글이다. 글쓴이는 주변 사물을 관찰하거나 직접 체험한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얻게 된 깨달음을 서술하며 현실을 비판하고 독자에게 교훈을 준다. 이때 비유적 표현, 고사나 성현의 어록 인용, 유추의 방식, 우회적 표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하게 글에 담아낸다. 또한 이치를 깨달은 자가 이치를 깨닫지 못한 자의 물음에 대답하는 대화체 방식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글쓴이와 독자가 지닌 생각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게 하여 설득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 보기 |

(가)와 (나)는 자연물 또는 자연 현상을 인간의 삶과 관련짓고 있는 작품이다. (가)의 화자는 자연물의 이미지를 제시하여 임에 대한 사랑을, 자연 현상을 제시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글쓴이는 자연 속에서 본성을 지키고 있는 자연물과 본성을 잃은 자연물을 대비하여 이들을 각각 사람의 삶과 연결 지어 혼란스럽던 조선 중기에 자신을 굽혀 시류에 편승하려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Final &
Readings

역사

무진기행. 마찬가지로 성찰적이며 자신의 사고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

지난 9월 '원미동 시인'에서 보였던 경향인 리얼리즘적 경향을 고려하여 교집합인 작품을 선택한다면, 단연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내가 이사를 온 첫날 저녁, 할아버지 앞에 불려 나가서 들은 얘기를 지금도 기억한다. 그것은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이었다. 몇 가지 나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묻고 나서, 할아버지는 갑자기, 내가 6·25 때는 몇 살이었느냐고 물었다. 정확한 나이는 얼른 계산이 되지 않아서, 열 살이었는데요 하고 내가 우물쭈물 대답하자, 할아버지는 아마 그럴 거라고 하며 사변이 남겨 놓고 간 것이 무엇인 줄을 모르겠군 하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사변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있다고 해도 어린아이로서의 기억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무엇이 사변 후에 더 보태지고 없어진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솔직히 대답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그것은 가정의 파괴라고 한마디로 얘기했다. 그렇게 말하는 투가 마치 내가 나쁜 일을 해서 책망이라도 한다는 것처럼 단호하고 힘있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죄를 지은 기분이 되어 꿇어앉았던 자세를 더욱 여미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나는 이사를 한다는 흥분과 긴장과 피로 속에서 하루를 보내었기 때문에 졸음이 퍼붓는 걸 참아 가며 할아버지의 관(觀)이랄까 주의(主義)랄까를 들었다.

그것은, 혼미(昏迷) 가운데서 들은 것을 두서가 없는 대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았다. 가풍이 없는 가정은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다. 가풍이란 질서 정신에 의해서 성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가정은 사변 때 식구들의 생사조차 서로 모를 정도로 파괴되었다. 그래서 더욱 가정의 귀중함을 알았지 않느냐. 그러니 질서 정신에 입각해서 각기 가정은 가풍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하는 데 장애가 아주 많은 게 우리들이 처한 현실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자신들에게 엄격해야 한다. 대강 이런 것이었다.

가풍. 내게는 낯설기 짝이 없는 단어였지만 며칠 동안에 나는 그 말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의 실체를 온몸에 느끼게 되었다. ‘규칙적인 생활 제일주의’가 맨 먼저 나를 휘감은 이 집의 가풍이었다.

[A] 아침 여섯 시에 기상. (그러나 나의 경우는 자발적인 기상이라 할아버지가 차를 끌고 와서 나를 깨우고 그 차를 마시게 하고 내가 무안함에 가슴을 두근거리며 황급히 옷을 주워 입으면 아침 산보를 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수면 부족으로 좀 자유로운 낮에 늘 낮잠이었다. 그러나 그 집 식구들은 심지어 세 살 난 어린애마저도 그 규칙을 지키고 있는 모양이었다.) 아침 식사. 출근 혹은 등교. 할아버지도 어느 회사에 중역으로 나가고 있었으므로 집에 남는 건 할머니와 며느리, 어린애와 식모, 그리고 노곤한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나뿐이었다. 그동안 나는 오전 열 시경에 며느리와 할머니가 놀리는 미성 소리를 쭉 듣게 되고, 열두 시경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고, 오후 네 시엔 「엘리제를 위하여」를 듣게 된다. 오후 여섯 시 반까지는 모든 식구가 집에 와 있어야 하고 저녁 식사. 식사가 끝나면 십여 분 동안 잡담. 그게 끝나면 모두 자기 방으로 가서 공부. 그리고 식모가 보리차가 든 주전자와 컵을 준비해서 대청마루 가운데 있는 탁자 위에 놓는 달그락 소리가 나면 그때 시간은 열 시 오륙 분 전. 그 소리가 그치면 여러 방의 문이 열리고 식구들이 모두 나와서 물 한 컵씩을 마시고 ‘안녕히 주무십시오.’를 한 차례 돌리고 잠자리로 들어간다. 세상에 이런 생활도 있었나 하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식구 중 누구 한 사람 얼굴에 그늘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 나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세계에 온 것이었다. 동대문이 가까운 창신동 그 빈민가의 내가 들어 있었던 집의 식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정식(正式)의 생활.

내가 간혹 이 양육의 식구들의 얼굴을 생각해 보려 할 때면, 물론 대하는 시간이 적었던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차라리 아마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지금 있는 방에 대해서 생소감을 느끼던 그런

알 수 없는 이유로써 나는 이 집 식구들의 얼굴을 덮어 누르고 보다 명료하게 떠오르는 창신동 식구들의 얼굴 때문에 적지 않게 괴로워했다.

(중략)

이윽고 서 씨의 몸은 성벽의 저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서 씨가 성벽 위에 몸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벽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금고만 한 돌덩이를 그의 한 손에 하나씩 집어서 번쩍 자기의 머리 위로 치켜올린 것이었다. 지렛대나 도르래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혹은 여러 사람이 달라붙지 않고서는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를 가진 돌을 그는 맨손으로 들어 올린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보라는 듯이 자기가 들고 서 있는 돌을 여러 차례 흔들어 보이고 나서 방금 그 돌들이 있던 자리를 서로 바꾸어서 그 돌들을 곱게 내려놓았다.

나는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고담(古談) 같은 데서 등장하는 역사(力士)만은 나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 한밤중에 바로 내 앞에서 푸르게 빛나는 조명을 온몸에 받으며 성벽을 디디고 우뚝 솟아 있는 저 사내를 나는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몰랐다.

역사, 서 씨는 역사다, 하고 내가 별수 없이 인정하며 감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귀기(鬼氣)에 찬 광경을 본 무서움에 떨고 있는 동안에 그는 어느새 돌아왔는지 유령처럼 내 앞에서 자랑스러운 웃음을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서 씨는 역사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다는 서 씨의 얘기를 들었다.

[B] 그는 중국인의 남자와 한국인의 여자 사이에서 난 혼혈아였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중국에서 이름 있는 역사들이었다. 족보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수(將帥)가 있다고 했다. 그네들이 가졌던 힘,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고 유일한 유물이었던 모양이었다. 그 무형의 재산은 가보(家寶)로서 후손에게 전해졌다. 그것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영광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서 씨에 와서도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 이제 와서 그 힘은 서 씨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밖에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서 씨는 그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했다. 남만큼만 벽돌을 날랐고 남만 큼만 땅을 팠다. 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하여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 씨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한밤중을 택하고 동대문의 성벽에서 그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부(冥府)의 선조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낮에 서 씨가, 동대문의 바로 곁에 서서 행인들 중 누구 한 사람도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돌 한 개의 위치 변화에 관심을 보내지 않고 지나다닐 때, 옮겨진 돌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나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이 서 씨가 간직하고 있는 자기였고 내가 그와 접촉하면 할수록 빨려 들어갈 수 있었던 깊이였던 모양이었다.

그 집— 그늘 많은 얼굴들이 살던 그 집에서 나는 나 자신 속에서 꿈틀거리는 안주(安住)에의 동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헤어날 길 없는 생활 속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곳을 똑 떠나서 이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집에 오자 그것은 견디어 낼 수 없는 권태와 이 집에 대한 혐오증으로 형체를 바꾸는 것이었다. 나란 놈은 아마 알 수 없는 놈인가 보다.

㉠ 피아노 소리가 그쳤다. 무의식중에 나는 방바닥에서 팔목시계를 집어 올렸다.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던가를 깨닫자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 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일도 그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서 그 시간들을 비교하며 이 집에 대한 혐오증의 이유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자신에 대해서 어이가 없음을 느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전에 내가 서 씨의 그 거짓 없는 행위를 회상했던 덕분이 아니었을까? 서 씨가 내게 보여 준 게 있다면 다소 몽상적인 의미에서의 성실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 양옥 속의 생활을 비판하는 데도 필

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고 내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집으로 옮겨온 다음 날의 저녁, 식사 시간도 잡담 시간도 지나고 모든 사람들의 공부 시간이 되자 나는 홀로 내 방의 벽에 기대앉아서 기타를 튕겨 보기 시작했던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불현듯이 기타를 쳐고 싶어지는 때가 있는 법이다. 그것은 감정의 요구이지만 그렇다고 비난할 건 못 되지 않는가. 내가 줄을 고르며 음을 시험해 보고 있는데 다색(茶色) 나왕으로 된 내 방문이 열리며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리고 나의 ㉠기타 켜는 시간은 오전 열 시부터 한 시간 동안 할머니와 며느리가 미싱을 돌리는 같은 시각으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가풍이 내게 작용한 첫 번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내가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이용해 본 적은 하루도 없었다. 흥이 나지 않아서였다고 하면 적당한 표현이 되겠다.

절망감이 마루 끝에도 마당 가운데서도 방마다에도 차서 감돌던 창신동의 그 집에서는 식구들에게 그들이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형제 없는 감동 같은 것을 조금씩은 깨우치고 영혼의 안정에 얼마간은 공헌할 수 있었던 나의 기타는 그래서 노인들이 우연한 한마디에서 갑자기 자기의 늙음을 발견하듯이 낡아 빠진 모습으로 방의 구석지에 기대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었다.

처음에 나는 이 집에 대하여 존경심을 가졌다. 그러나 나는 이내 그것이 처음 보는 경치에 보내는 감탄과 같은 성질의 것밖에는 되지 않음을 알았다. 이해와 감정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한 것도 그때였다. 이 가족의 계획성 있는 움직임, 약간의 균열쯤은 금방 땀질해 버릴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는 전진적 태도, 무엇인가 창조해 내고 있다는 듯한 자부심이 만들어 준 그늘 없는 표정— 문화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희구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달리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어느 지점과의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는 셈이었다. 이것이 나의 그들에 대한 이해였다.

그러나 그 어느 지점이 무한하게 먼 곳에 있을 때도 우리는 그들이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더구나 나로 하여금 기타 켜는 시간의 제약까지를 주어 가면서 말이다. 차라리 이 사람들의 태도야말로 자신들은 견고 있다고 믿으면서 사실은 매일매일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아닐까. 빈민가에 살던 사람들의 그 끝없는 공전(空轉) 같아 보이는 생활이 이곳보다는 오히려 더 알찬 것이 아니었을까. 이것이 나의 감정이었다.

- 김승욱, 「역사」

「역사」는 과거를 수용하는 두 가지 생활 방식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에서 과거는 복원되어야 할 가치를 지닌 시간으로 간주된다. 이를 인식하는 인물들은 현실에 나타난 폐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거나, 쇠락해 가는 가치를 보존하려는 삶의 방식을 보여 준다. ‘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두 삶의 방식이 각각 다르게 작용하는 현실의 차이를 직시하게 된다. 명분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삶의 태도와 자발적인 방식으로 자긍심을 가지려는 삶의 태도를 포착하였기 때문이다. 「역사」는 이처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과거를 수용하는 인물들의 태도를 형상화하여, 삶의 방식에 대한 반성과 전후의 세태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F inal& R eading

운영전 & 동승

지난 9월, 숙영낭자전이 나왔다. 숙영하면 운영이지! 라는 생각을 했으며, 한편으로 그 동안 만나왔던 극작품과 붙어 있다는 점에서 운영전을 포함시켰다.

한편 동승의 경우, 구도자인 동시에 어린아이인 동승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수능에 출제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사는 그날 몰래 수성궁을 살펴보았는데, 담장이 높고 험준해서 몸에 날개를 달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묵묵히 말을 하지 않고 근심스런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진사의 노비 가운데 이름이 특(特)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본래 재주가 많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특이 진사의 안색을 보더니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진사 어른! ㉠필히 세상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말을 마친 특은 뜰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이에 진사가 마음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자, 특이 말했습니다.

㉡“어찌 일찍이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마땅히 그 일을 도모하겠습니다.”

특이 즉시 사다리를 만들었는데 아주 가볍고 단순했으며, 능히 접거나 펼 수 있었습니다. 둘둘 말면 병풍을 접은 것과 같고, 펼치면 대어섯 길 정도 되어 손으로 운반할 수도 있었습니다. 특이 사용법을 가르쳐 주며 말했습니다.

“이 사다리를 가지고 궁궐 담에 오르고, 다시 안에서 접었다 폈다 하십시오. 내려올 때도 역시 그와 같이 하십시오.”

진사가 특에게 뜰에서 시험해 보게 하니, 과연 그의 말과 같아서 진사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사가 가려고 할 때, 특이 또 품속에서 짐승의 털가죽으로 만든 버선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진사가 털가죽 버선을 신고 걸어가니, 나는 새처럼 가벼워 땅을 밟아도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사는 이러한 꾀로 궁궐 안팎의 담을 넘어 들어와 대나무 숲속에 엎드려 있는데, 달빛은 낮처럼 밝고 궁궐 안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조금 후에 어떤 사람이 안에서 나와 산보를 하면서 낮게 시를 읊조렸습니다. 진사는 대나무를 헤치고 머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시는 분은 누구신지요?”

그 사람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낭군께서는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진사는 성큼성큼 걸어 나와 절하며 말했습니다.

(중략)

이때 대군은 이전에 지은 비해당에 현판(懸板)을 달기 위해 아름다운 글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손님들의 시가 모두 마음에 차지 않자, 군이 진사를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고 시를 지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진사는 붓을 한번 휘둘러 써 나갔는데, 글이 썩 잘되어 글자 한 자도 덧붙일 것이 없었습니다. 그 시에는 산수의 경치와 비해당의 모습이 극진하게 표현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비바람을 놀라게 하고 귀신을 통곡하게 할 만했습니다. 대군은 구절마다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뜻밖에 오늘 왕자안*을 다시 보는구나!”

대군은 율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사가 지은 시에 ‘담장을 좇아서 그윽이 풍류곡(風流曲)을 흠치네’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대군은 이 구절에서 율기를 멈추고 진사를 의심했습니다. 이에 진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대군에게 절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원컨대 물러나고자 합니다.”

대군은 시종에게 진사를 부촉하여 전송토록 했습니다.

다음 날 밤에 진사가 궁궐로 들어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달아나는 것이 좋겠소. 어제 내가 지은 시를 보고 대군이 의심하셨으니, 오늘 밤 떠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소.”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꿈]에 한 사람을 보았는데, 생김새가 영악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목돌선우라고 일컬으면서, ‘이미 오래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장성(長城) 아래서 기다린 지 오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 잠에서 깨어났는데, 아무래도 꿈의 징조가 상스럽지 않습니다. 낭군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사가 말했습니다.

“허망한 꿈속의 일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소?”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장성이라고 한 것은 궁궐의 담장이요, 그가 목돌이라고 한 것은 노비 특입니다. 낭군은 이 노비의 속내를 잘 알고 있는지요?”

진사가 말했습니다.

“이 노비는 본래 흉악한 놈이나 나에게서는 충성을 다하였소. 오늘 낭자와 이렇듯 좋은 인연을 맺게 된 것도 모두 이 노비의 꾀 때문입니다. 어찌 처음에는 충성을 바치고, 뒤에 악행을 저지를 리가 있겠소?”

이에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낭군의 말씀을 거절하겠습니까? ㊸ 다만, 자란은 저와 형제처럼 정이 두텁기 때문에 자란에게 알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즉시 자란을 불러와, 세 사람이 삼발처럼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진사의 계획을 자란에게 말하자, 자란이 크게 놀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서로 즐긴 지 오래되어서 이제 스스로 화를 빨리 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1, 2개월 서로 사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차마 담을 넘어 달아나는 것을 지지르려고 하느냐? 주군이 너에게 마음을 기울이신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그것이 떠날 수 없는 첫째 이유요, 부인이 사랑하심이 매우 깊으니 그것이 떠날 수 없는 둘째 이유요, 화가 양친(兩親)에게 미칠 것이니 그것이 떠날 수 없는 셋째 이유요, 죄가 서궁 사람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니 그것이 떠날 수 없는 넷째 이유이다. 게다가 천지가 곧 하나의 그물인데, 하늘로 오르고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달아나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혹시 붙잡히게 된다면 그 화가 어찌 네 한 몸에만 그치겠느냐? 꿈의 징조가 상스럽지 못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만약 꿈이 길조(吉兆)였다면 너는 기꺼이 가려 했더냐? 내가 할 일은 마음을 굽히고 뜻을 억누르며, 정절을 지키고 편안히 앉아서 하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이다. 네가 점점 나이가 들어 늙게 되면 주군의 은혜와 사랑이 점차 느슨해질 것이다. 이러한 형편을 보고 있다가 칭병(稱病)하고 오래도록 누워 있으면, 주군께서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것이다. 이때 낭군과 함께 손을 잡고 돌아가 백년해로(百年偕老)하는 것보

다 좋은 계획이 없으리라. 이러한 생각은 하지 않고 감히 도리에 어긋난 꾀를 내니, 네가 누구를 속이며 하늘마저 속이려 하느냐?”

진사는 일이 성사되지 않을 줄 알고 탄식하며 눈물을 머금은 채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 작자 미상, 『운영전』

* 원저자: 7세기 중반에 태어난 중국 당나라의 대표적 시인으로, 오언 절구에서 뛰어난 작품을 남김.

나 [앞부분 줄거리] 깊은 산중의 절에 사는 동자승인 도념은 어린 시절 떠나간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간절히 그녀를 기다린다. 도념은 죽은 자식을 위해 불공을 드리러 오는 미망인에게 마음이 끌리고 미망인 또한 도념에게 정을 느끼며 양자로 삼고자 한다. 도념은 미망인의 목도리를 예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데리러 올 어머니를 위해 토끼를 잡아 목도리를 만든다. 하지만 주지가 이 토끼 목도리를 발견하게 되고 도념의 살생에 대해 크게 분노한다.

정심을 따라 미망인, 원내로 들어간다.

도념: (홀연히) 스님, 전 세상에 가서 살구 싶어요.

주지: 닥디려. 무얼 잘했다구 또 그런 소릴 하구 있니?

도념: 질더러 거짓말한다구만 마시구, 저한테 어머니 계신 데를 가르쳐 주십쇼.

주지: 네 어미란 대죄를 지은 자야. 너에겐 어미라기보다 대천지원수라는 게 마땅하겠다. 파계(破戒)를 한 네 어미 죄의 피가 그 피를 받은 네 심줄에 가뜩 차 있으니까, 너는 남이 한 번 헤일 염주면 두 번 헤어야 한다.

도념: 왜 밤낮 어머니 욕만 하십니까? 아름다운 관세음보살님은 그 얼굴처럼 마음두 인자하시다구 하시지 않으셨어요? [經]에 오는 사람마다 모두들 우리 어머니는 이뻐올 것이라구 허는 걸 보면 스님 말씀 같은 그런 무서운 죄를 지으셨을 리가 없어요.

주지: 그건 부처님에게만 여쭙는 소리야. 너 유식론(唯識論)에 쓰인 경문을 알지? / 도념: 네.

주지: 외면사보살 내면여야차(外面似菩薩 內面如夜叉)라 하셨느니라. 네 어미는 바로 이 경문과 같이, 얼굴은 보살님같이 아름답지만, 마음은 야차같이 무서운 독물이야.

도념: 스님, 그렇게 악마 같을 리가 없습니다.

주지: 네 아버지의 죄가 네 어미에게 두 옴아서 그러니라. / 도념: 옳다니요?

주지: 네 아버지는 사냥꾼이거든. 하루에도 산짐승을 수십 마리씩 잡아, 부처님의 가슴을 서늘하시게 한 대악 무도한 자야. 빨리 법당으로 들어가자. 냉수에 목욕하구, 내가 부처님께 네가 저지른 죄를 모다 깨끗이 씻어 주도록 기도해 주마.

도념: 싫어요, 싫어요. 하루 종일 향불 냄새를 쐬면 골치가 어쩔어쩔해요.

주지: 이게 무슨 죄 받을 소리니? (조용히 달래며) 도념아, 너 저 연못을 보라. 5월이 되면 꽃이 피고, 잎사귀엔 구슬 같은 이슬이 구르고 있지 않니? 저렇게 잔잔한 연못두 한 겹 물만 퍼내구 보면 시꺼먼 개흙투성이야. 그것뿐인 줄 아니? 십 년 묵은 이무기가 용이 돼서 하늘루 올라갈라구 헛바닥을 널름거리며 비 오기만 기다리구 있단다. 동네두 꼭 저 연못과 마찬가지로. 겉으루 보면 모두 즐겁구 평화한 듯하지만 속에는 모든 죄악과 진애(塵埃)가 들끓는, 그야말로 경문에 아로새겨 있는 글자 그대루 오탁(五

濁)의 사바(娑婆)니라.

도념: 아니에요. 모두들 그렇지 않대요. 연못 속에는 연근이라는 뿌럭지가 있지, 이무기는 없대요.

주지: 누가 그러든? 누가 그래?

도념: 동네 사람들 올라올 적마다 물어봤어요.

주지: 그럼, 동네 녀석들 하는 소리는 정말이구 내 말은 거짓말이란 말이지? 경전이, 부처님 말씀이 모두 거짓말이란 말이지? 오! 이런 불가사리 같은 녀석 봤나? (하고 펄쩍 뛴다.)

도념: 스님, 바른대루 말이지, 저는 이 절에 있기가 싫습니다.

주지: 듣자 듣자 하니까 나중엔 못 하는 소리가 없구나? 오, 그 눈으로 날 보지 마라. 살생을 하드니, 전신에 살이 뻗친 모양이다.

미망인, 원내에서 나온다. 뒤따라 그의 모(母).

도념: (미망인에게 매달리며) 어머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 미망인: 응, 염려 마라.

주지: 염려 말라니요? 아씨는 그저 애를 데려가실 작정이십니까? / 미망인: 그럼은요.

친정모: 못 한다. 넌 애 하는 짓을 지금껏 두 눈으로 푹푹히 보구두 이러니?

미망인: 어머니, 봤기에 더 한층 데려가구 싶은 생각이 솟았어요.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했으면 그런 짓을 다 했겠어요? 지금 이 애를 바른길루 이끌어 갈려면 내 사랑 속에서 키우는 것밖에 딴 도리가 없어요.

친정모: 애는 전생에 제 부모의 죄를 반구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구할랴구 해두 구할 수가 없단다. 흥역 마마하듯 이렇게 피하지 못할 죄가 하나씩 둘씩 발생하지 않니? 애보담, 우리 인철이 영혼 축원할 도리나 걱정해라.

미망인: 인철인 기왕 죽은 애니까 재를 다시 지내면 그만 아니에요?

친정모: 애가 토끼 목도리를 존상 뒤에다 감춰만 뒀다면 모를까, 젊은 별좌(別坐) 애길 들으니까 어젯밤엔 딱 그 더러운 것을 관세음보살님 목에다 걸어 놓구 물끄러미 바라다보구 있었다는구나.

미망인: (울며 미칠 듯이) 어머니, 난 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애당초에 생각이나 안 먹었다면 모를까, 한번 먹어 논 것이라 잃구는 살 수가 없어요.

주지: 아씨께서 진정으로 애를 사랑하신다면, 눈앞에 두구 노리개를 삼으실랴구 하시지 말구 애 매디매디에 사무쳐 있는 전생의 죄 속에서 영혼을 구하게 이 절에 뒤 주십시오. 자기 한 몸의 죄만 아니라 제 아버지 어머니 죄도 씻어야 할 테니까 애는 여간한 공덕을 쌓기 전에는 저승에 가서 무서운 지옥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도념: 스님, 죽어서 지옥에 가드래두 난 내려가겠어요. 찾아오는 사람을 막지 않구 떠나는 사람을 붙들지 않는 것이 우리 절 주의라구 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지: (열화같이 노하며) 수다스러. 한번 못 간다면 못 가는 줄 알아라. (미망인을 보고 선언하듯) 아씨께서 서방님을 잃으시고 외아들마저 잃으신 것두 다 전생에 죄가 많으셨던 탓입니다. 아씨 죄두 미처 벗지 못하시구 이 췌덩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실랴구 이러십니까? 두 번 다시 이 이야기를 끌어내시라거든 대신 이 절에 오시지 마십시오.

- 함세덕, 「동승」

Final &
Readings

장난감 도시

지난 6월 무성격자를 보자마자 떠오른 소설은 ‘초식’이며, 그 연장선에서 떠오른 작품이 장난감 도시다.

작가의 비참한 어린 시절을 소설화한 작품으로, 전쟁, 실향, 굶주림, 헤어짐, 어머니의 죽음 등을 경험하며 작가의 내면을 파헤치고 도시적 삶의 일면을 드러낸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을은 속이 온통 비어 있는 계절이었다. 티끌 한 점 없이 파랗게 드리워져 있는 하늘이 그랬고, 물처럼 말갭게 흘러내리는 햇살이 그랬다. 적어도 거기에만은 지난 전쟁이 아무런 상흔도 남기지 못한 셈이었다. 감추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눈에 띄는 모든 사물들은 제각기 텅 빈 속을 훤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잠자리들처럼 투명한 생명체가 또 어디 있을까. 가을 햇살의 무늬이듯 아른아른 날아오르는 잠자리 떼를 보고 있노라면 나는 일쑤, 콧날이 멍해지곤 했다. 가진 것이랴곤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보다 맑고 정갈한 생명들이었다. 다병한 어머니의 얼굴을 나는 자주 연상했다.

나는 내 열 개의 손가락 사이마다 날개를 접힌 채 가지런히 끼여 있는 잠자리들을 들여다보았다. 고추잠자리는 무엇보다 우선 그 몸매가 고왔다. 열 개의 마디마다 주홍빛 물감이 손끝에 묻어 날 듯했다. 뒷장잠자리는 삼각형의 흑색 무늬 때문에 다소 꺼림칙한 느낌을 주었다. 누런 몸통 끝부분에 가지런히 찍혀 있는 세 개의 얼룩무늬를 보고 있노라면 매번 기분이 언짢아지곤 했다. 가슴통 양쪽에 세 줄의 검은 선이 그어져 있는 고추잠자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누런 빛깔의 암컷은 언제나 우울하고 불길한 느낌을 갖게 했다. 이 무렵엔 도무지 구경하기 힘든 것이긴 하지만, 어쩌다 간혹 걸러드는 밀잠자리도 느낌은 마찬가지였다. 몸통 하나 가득히 묻어 있는 흰 가루가 내게는 도무지 못마땅했다. 그것이 손끝에 묻어날 때마다 나는 영 질겁을 하곤 했다. 이들에 비해 대모잠자리는 무엇보다 그 흑갈색의 무늬가 아름답게 느껴졌다. 투명한 두 개의 날개 끝에 선명하게 박혀 있는 그 흑갈색 무늬를 나는 오래도록 들여다보며 거듭 찬탄해 마지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것들에 매료당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실상 다른 데에 있었다. 것처럼 연약하고 섬세한 몸통과 가늘고 긴 세 쌍의 다리와 그리고, 명주 올 같은 맥(脈)을 제하고는 온통 투명하기만 한 두 쌍의 날개에도 불구하고 어쩌서 거의 모든 잠자리들은 투박한 머리와 육식용(肉食用)의 단단한 구기(口器)와 한 쌍의 크고 불량한 겹눈과 그리고, 끝 같은 턱을 지니고 있는지…… 그 불가해한 모순이 나를 강하게 사로잡았던 것이다.

친구 태길이가 지친 얼굴로 돌아왔다. 포충망 속엔 또 한 마리의 잠자리가 들어 있었다. 우리는 손 대신 발로 가위바위보를 했다. 그가 이겼다. 나는 그의 앞에 내 두 손을 내밀었다.

열 개의 손가락 틈새마다 그날의 포획물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그가 왼손 것을 택했다. 바른손 것은 자연히 나의 몫이었다. 우리는 천천히 집을 향해 걸었다. 무슨 보석 반지처럼 잠자리들을 손가락 사이에 잔뜩 낀 채였다. 몹시 허기가 졌기 때문에 머리통을 이고 가기가 힘들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 웬지 안심이 되었다. 그 머리맡에서 누나가 나를 돌아보았다. 뽀얀 얼굴이었다. 저녁

어스름 속에서도 아주 메말라 보이는 얼굴이었다. 나는 벽에 기대선 채 한동안 입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래,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다. 고물 자전거를 털털거리며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어쩌면 오늘 밤쯤 그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다.

[A] “많이두 잡았네…….”

누나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러고는 잠자리를 한 마리씩 천천히 놓아주었다. 장난감 같은 우리들의 방, 그 좁은 공간 속을 그것들은 어지러이 날아다녔다. 마치 어위고 굶주린 혼백처럼 더할 수 없이 나약하고 투명한 몸짓으로…… 육식이 아니라 실사 풀을 먹는다고 해도, 또는 그 끝에 맺힌 이슬만 취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그들처럼 투명한 넋을 지닐 수는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했다.

(중략)

어머니의 낮빛은 갈수록 희고 투명해졌다. 얼굴만이 아니었다. 이불 밖으로 빠져나온 손이며 발목들도 마찬가지로였다. 핏기 한 점 없이 창백한 피부 아래 실날같은 정맥들이 아른아른 내비쳤다.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어머니의 변모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여서 조금도 놀랄 일이 못 되었다. 아주 이따금씩 한두 모금의 물을 청해 마시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취하려 하지 않는 어머니였다. 당신의 몸이 뱀의 허물처럼 투명해짐도 그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벽을 향해 죽은 듯 누워 있는 어머니를 보고 있노라면 나는 곧잘 환상에 사로잡히곤 했다. 아주 눈부신 환상이었다. 마침내 남루한 육신을 벗어던지고 나비처럼, 또는 잠자리처럼, 햇빛 화사한 창공으로 투명하게 날아오르는 환상이었다.

언덕 위의 개척 교회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부터 그곳 창고는 바닥이 나 버렸다. 전지분유의 그 빠닥빠닥하고 찰진 맛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일마다 몰려갔지만 그러나 매번 빈손으로 돌아왔다.

사정은 성당도 마찬가지였다. 그해 연말에 옷가지 몇 점을 얻어 낸 것으로 그만이였다. 하느님도 마침내 거덜이 나신 모양이라고, 아쉽게 우리는 체념했다. 하지만 그 옷들이 그해 겨울을 나는 데에 도움을 주었던 것만은 우리들 중 아무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

비록 누군가 입던 것이긴 해도 그것은 우리들의 추위를 조금은 가려 주었다. 제아무리 잘 만들어진 방한복이라고 한들 안의 추위까지야 막을 수 없는 노릇이다. 공복에서 오는 추위가 실상은 더 가혹했다. 하지만 그것들을 뒤집어쓰고 나서면 안의 추위도 조금은 견딜 만했다.

그래, 아주 조금이다. 그리고 꼭 그만한 농도로 우리들의 신앙심도 남아 있었다.

물론 예외도 있다. 저 광목 자루 속에서 나온 소녀가 그 비스

한 예였다.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휴전선 저쪽에서도 독실한 신자였다는 사실을. 그러나 예의 선병질적인 소녀만은 사정이 달랐다. 나는 감히 단정할 수가 없다. 그녀가 만약 독실한 신앙심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저 휴전선 너머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이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 우리들처럼 언덕 위의 개척 교회와 시내의 성당을 번갈아 드나들었기 때문이다. 소량의 전지분유와 두 뒷박의 옥수수가루 또는 풀때죽 중 그녀 역시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에게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고 나는 믿고 있다. 통운 창고에서 손수레를 끌던 그녀의 아버지 — 정확히 말하자면 ‘끌던’이 아니라 ‘밀던’이 옳다. 왜냐하면 그 손수레마저 자기 것이 아니었으므로. 어쨌든 그녀의 아버지가 허리를 심하게 다쳐 몸져누운 게 바로 그것이였다.

아버지의 불행한 사고를 계기로 그녀의 태도는 표변했다. 자신의 신앙이 바로 아버지의 지팡이거나 하듯 그녀는 독실해졌던 것이다. 바람 드센 언덕배기의 그 천막 교회를 그녀는 새벽마다 오르내렸다. 한겨울에도 내의를 입지 않았다. 믿음의 추위를 잊게 해 준다고 여전히 창백한 얼굴과 나약한 몸매의 그녀는 말했다.

만성적인 공복감 때문에 항상 껌딱거리고 있는 아이들을 [B] 보면 그녀는 또 이렇게 말했다.

“기도를 해. 열심히, 열심히 기도드리면 배고픈 것도 잊어 버린다. 너. 아버지가 말했어. 사람은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러므로 믿는 자는 배고프지 않다.”

가엾은 그들 부녀가 어떤 식으로 날마다의 허기를 달랠 것인가를 나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다. 머지않아 그 병약한 소녀마저 제 아버지의 곁에 쓰러져 버릴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잘 견디어 냈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결판났는지를 나는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즉 우리 가족이 마침내 그 판자촌을 떠나기까지, 예의 선병질적이고 허약한 소녀는 꺾이지 않고 끈끈하게 잘 버티어 내고 있었다는 점이다.

㉠ 고통 없이는 결코 그 작고 창백한 얼굴을 회상할 수가 없다. 특히 쾅하게 열려 있는 그녀의 두 눈은 말이다. 먼 훗날, 나는 그와 유사한 눈빛을 비아프라 난민들 속에 섞여 있는 아이들에게서 발견하고 놀란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소녀의 눈매처럼 타는 듯 빛나고 있지는 않았다.

㉡ 이제는 고백해야겠다. 나는 그 소녀에게 조금씩 이끌려 들고 있었다. 처음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던 그 발작 때문에, 다음엔 병적인 그녀의 용모 때문에, 그리고 최후엔 그 감동적인 신앙 때문에 내 작은 마음은 점점 기울어져 갔다. 교회나 길목에서는 물론, 꿈속에서조차도 그녀의 주위를 기웃거릴 만큼.

그녀의 말이 전혀 거짓은 아니었다. 때로는 소녀의 얼굴을 머

릿속에 그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공복감을 잠시 달랠 수 있었다. 물론 아주 잠시였다. 하물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기도 드림으로써 배고픔을 잊을 수 있다는 그녀의 말이 내게도 조금은 수궁이 되었다. 짧은 모를 일어로되 저 병약한 소녀보다야 하나님 쪽이 훨씬 더 효과적이리라고 나는 결론지었다.

몹시 허기진 날 저녁 무렵에 나는 언덕 위의 교회로 슬며시 올라갔다. 우리 유년 주일 학교 천막은 다행히 비어 있었다. 조금은 계면쩍기도 했지만 보다 절실한 감정이 나를 때밀어 넣었다. 그것은 고통이었다. 주린 육체의 아픔이었다. 나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쥐었다.

결과는 몹시 부끄러운 것이였다. 차라리 그 소녀에게 기도를 드렸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공복감 때문에 나는 잠시도 버티 낼 재간이 없었다. 부끄럽게, 허망하게 나는 도망쳐 나왔다. 몸이 온통 견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너무나 심한 떨림이어서 식은땀이 끈끈하게 내뿜 지경이었다. 바람 세찬 언덕배기를 계걸음으로 내려오면서 나는 딱히 누구에게라고 할 것 없이 두루두루 알감자를 먹여 주었다.

“물을 마시렴.”

누나가 담담한 얼굴로 말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물 대접을 집어다 주었다. 나는 그것을 한 모금 들이켰다. 아주 차가웠다. 관자놀이끼로 찬바람 한 줄기가 빠져나갔다. 진저리를 친 다음에 나는 또 한 모금을 들이켰다. ㉢ 이번에는 견딜 만했다. 식도를 타고, 비어 있는 위장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감촉을 나는 의식했다.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물도 급하게 마시면 체하는 거다.”

누나가 대접을 집어 갔다. 그리고는 천천히 한 모금 들이켰다. 나는 다시 그것을 받아 들고 누나처럼 천천히, 맛을 음미하듯 또 한 모금을 마셨다.

예의 소녀보다 누나 쪽이 한결 현명하다고 생각되었다. 물은 온갖 맛을 지니고 있었다. 결코 맛만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음식물의 빛깔과 형태와 미각으로 쉽게 환치되었다. 온통 푸짐한 환상의 만찬이었다.

누나와 나는 이불로 몸을 둘둘 감고 마주 앉은 채 번갈아 가며 한 모금씩 물을 마셨다. 아니, 만찬을 즐겼다. 그리고는 상상의 포만감 속으로 빠져들었다. 무거운 식곤증과 더불어 잠이 쏟아졌다.

— 이동하, 『장난감 도시』

보기

「장난감 도시」에서는 세계에 대한 인물의 인식을 시각적 속성이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제시한다. 투명함은 현실의 질곡이 드러나지 않는 일상을 나타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을 나타낸다. 투명함은 공핍한 현실의 실상을 나타낼 때 창백함이라는 속성으로 변주된다. 한편 환상을 통해 제시되는 시각적 이미지는 인물의 심리를 대비적으로 나타낸다. 벗어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은 투명한 이미지로,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소망은 다채로운 이미지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이러한 형상화 방식을 통해 전후 현실의 질곡을 견뎌 내는 인물의 경험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Final &
Readings

전원사시가

고산구곡가의 연장선에 있는 작품이지만, 귀향 후 농촌 생활을 소재로 한 전가 시조와 늙음을 한탄하는 탄로가의 성격을 동시에 담고 있다. 두 요소를 고려하여 문제 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출제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23051-0180

보기

「전원사시가」는 작가가 귀향한 후 창작한 연시조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크게 사계절의 흥취를 노래하는 ㉠ 사시가(四時歌)와 선달그믐날 밤의 감회를 노래하는 ㉡ 제석(除夕)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특정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형식적 통일성을 얻고 있다. 사시가는 농촌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다루는 전가 시조(田家時調)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제석은 탄로가(嘆老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시가의 마지막 수에서 겨울의 농촌 생활을 묘사한 후, 제석으로 이어지는 시상 전개 방식은 겨울이라는 동일한 계절을 배경으로 전가 시조와 탄로가의 성격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고 볼 수 있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봄날이 점점 기니 잔설(殘雪)이 다 녹거다

㉠ 매화(梅花)는 불셔 디고 버들가지 누르렀다

㉡ 아히야 울 잘 고티고 채전(菜田) 갈게 햏야라

〈제1수〉

잔화(殘花) 다 딴 후의 녹음이 기퍼 간다

백일(白日) 고촌(孤村)에 낮둑의 소리로다

㉢ 아히야 계면도 불러라 긴 조롬 씨오자

〈제3수〉

동리(東籬)에 국화 피니 중앙(重陽)이 거예로다

㉣ 자채(自蔡)*로 비즌 술이 햏마 아니 니것느냐

아히야 자해(紫蟹)* 황계(黃鷄)로 안주(酒) 장만 햏야라

〈제6수〉

㉤ 어제 쇼 친 구들 오늘이야 채 덩거니

긴 즈 계우 씨니 아적 날이 놉파 있다

아히야 서리 녹앗느냐 닐고자도 햏노라

〈제8수〉

이바 ㉦ 아히들아 새히 온다 즐겨 마라

㉧ 현스 현 세월이 소년(少年) 아사 가느니라

우리도 새히 즐겨 햏다가 이 백발이 되얏노라

〈제9수〉

이바 아히들아 날 신다 깃거 마라

자고 새고 자고 새니 세월이 몇춧 가리

백 년(百年)이 하 초초(草草) 햏니 나는 굿버 햏노라*

〈제10수〉

— 신계영,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자채: 울버. 철 이르게 익은 벼.

*자해: 계.

*굿버 햏노라: 서운해하노라.

Final &
Readings

황선감의록

국어가 어렵게 나온다면 분명한 점 하나, 인물도 많이 나오고 인물관계도도 엄청 복잡해진다. 이런 작품은 시험 피지컬을 검사하는 일종의 차력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도를 꼭 정리하셔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전에 진 공이 병부에 있을 때였다. 엄승의 양아들 조문화가 진 공의 딸 채경이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자기 아들과 혼인시키려고 청혼을 했는데, 공이 매정하게 사양하며 물리친 일이 있었다. 조문화는 크게 분개한 나머지 엄승에게 청탁하여 진 공을 산서성 노안부의 제독으로 좌천시켰다. 그런 후 다시 양식을 시켜 진 공이 태원전(太原錢) 삼천만 냥을 사사로이 착복하였다고 무고한 후, 금의옥에 가두고 온갖 음모로 죄를 얻어매었다.

조문화는 부인과 채경이 서울의 옛집으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는 부인의 친척 오라버니 오 낭중을 불러 말했다.

“진형수의 죄로 보자면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입만 한 번 병긋하면 구해 줄 수도 있소. 허나 지난번에 진형수는 나를 심히 업신여기며 우리 집의 청혼을 딱 잘라 거절했었지. 그러니 지금 내가 원수를 은혜로 갚을 수는 없지 않소? 듣자니 그대가 진형수와는 친척 간이라고 하니 진형수가 살아서 감옥 문을 나오는 걸 보고 싶다면 나를 위해 그 딸에게 이 말을 전하시오. 그 딸이 만약 효녀라면 틀림없이 어찌해야 하는지 알 것이오.”

오 낭중은 원래 권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저 ‘네네’ 하기만 하는 위인이라서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말을 들었다. 그리고 바로 오 부인을 찾아가 그 말을 전해 주었다. 그러자 부인이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조문화 그놈이 감히 내 딸을 모욕하다니!”

채경이 분연히 아뢰었다.

“옛날 효녀 중에는 사형에 처해진 아버지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관가의 노비가 된 이도 있고, 또 몸을 팔아서 부모의 장례를 치른 이도 있습니다. 저의 몸과 머리카락, 피부는 모두 부모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아버님이 무거운 형벌을 받으시게 되었는데, 자식으로서 모욕인지 아닌지를 따질 겨를이 있겠습니까?”

평소에 딸이 옥처럼 맑고 서릿발처럼 깨끗한 마음을 지녔다고 생각하고 있던 부인은, 채경의 이 말을 듣고 경악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한참 뒤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다.

“㉠총계정에서 학을 보고 읊었던 시가 앞날을 예언하는 말이 되었으니 참으로 슬프구나. 내가 어떻게 네 마음을 의심하겠느냐? 하지만 딸을 죽이고 아버지를 살리면 살아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옛사람의 말에 ‘내기에 황금을 건 사람은 분별력이 흐려진다’고 했다. 지금 내 마음이 황금을 내기에 건 사람과 같을 뿐이겠느냐? 너는 잘 생각해서 결정하거라.”

채경은 조금도 거리낌 없이 직접 오 낭중에게 혼인을 허락하겠다고 했다. 오 낭중이 크게 기뻐하면서 조문화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조문화는 미칠 듯이 기뻐했다. 다음 날 조문화가 다시 엄승에게 청탁을 넣으니, 천자는 진 공을 죽이지는 않고 운남으로 귀양을 보냈다.

진 공이 옥에서 나오자 부인과 채경이 붙들고 통곡하는데, 진 공은 강개한 모습으로 길게 탄식할 따름이었다.

“내가 미리 기미를 알아차려 벼슬을 그만둘 것을, 우유부단하게 지체한 탓에 이 같은 몸쓸 일을 당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소. 그렇지만 틀림없이 죽을 목숨을 폐하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셨으니 이 또한 천지신명이 보살핀 덕이오.”

그러자 부인이 흐느끼며 조문화와 혼사하기로 한 일을 말했다. 진 공은 화가 치밀어서 머리털이 모두 곤두섰다.

“내가 차라리 처형당해 버려지는 시체가 될지언정 어찌 차마 도적놈과 사돈을 맺은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견디겠소? 게다가 우리 딸은 세 살 때부터 이미 윤여옥과 약혼하여 지금 열한 해가 지났는데, 대장부라면 어떻게 자식을 팔아 목숨을 구하겠소?”

채경이 편안한 낯빛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소녀가 경솔하게도 미리 허락을 하였습니다. 이미 깨진 그릇이니 말한들 어쩔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일이 다 ㉠나름대로 살아날 방도가 있습니다. 아버님께서서는 소녀를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는 태연한 기색이었다. 진 공은 기가 막혀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다가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딸아이는 아장아장 길을 때부터 남다른 담력과 꺾기가 있었지. 지금 하는 말과 행동거지를 보니 틀림없이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기발한 계획이 있는 게야. 그냥 그 뜻을 따르고 지켜봐야겠다.’

[중략 부분 줄거리] 채경의 계획을 듣고 안심한 진 공 부부는 채경에게 자신들을 따라오지 말고, 오빠가 머물고 있는 회남으로 갈 것을 당부하며 운남으로 귀양길을 떠난다.

진 공과 부인이 떠나자, 채경은 방으로 돌아와 누워 밤낮으로 흐느껴 울었다. 조문화의 하인이 끊임없이 와서 혼인을 재촉했다. 채경은 유모를 시켜 말을 전하게 했다.

“이제 막 부모님과 헤어지니 마음이 먹먹합니다. 수십 일 정도 지내고 마음이 좀 진정된 뒤에야 혼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조문화의 하인이 돌아가서 채경의 말을 전했다. 아들이 안달이 나서 조급해하자 조문화가 말했다.

“사람의 마음이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 원하는 대로 해 주자꾸나. 그 아이는 이미 손안에 든 바나 진배 없으니 조금 혼인을 늦춘다고 어디로 가겠느냐?”

네댓새 후에 조문화는 계집종을 보내 채경이 어떤지 살펴보게 했다. 채경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이불을 뒤집어쓰고 신음하고 있다가 가냘픈 목소리로 유모를 불러 말했다.

“내가 슬픈 일을 겪고 마음이 상한 뒤끝에 심한 감기에 걸렸네. 마음을 편안히 먹고 몸조리를 잘해서 하루라도 빨리 몸이 완쾌되어야 아버님을 살려 주신 은혜를 갚을 텐데, 바깥 사람이 너무 자주 오가니 마음이 불편하네.”

계집종이 돌아가 이 말로 아뢰자 조문화가 기뻐하며 말했다.

“그 아이가 참으로 효성도 지극하고 은혜를 아는구나. 지금 그 뜻대로 해서 성을 돋우지 말자꾸나. 이후로는 매일 문밖에서 안부만 묻고 함부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다시 열흘이 지나자 채경은 부모님의 행차가 이미 멀어졌겠다 헤아리고, 유모와 몸종 운섬을 데리고 짐을 가볍게 꾸린 후, 남자 옷을 입은 채 밤에 한 마리 나귀를 타고 회남으로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조문화의 하인이 와서 보니, 집이 텅 비어 있고 사람 흔적이 없었다. 크게 놀라고 이상하여 같은 골목에 사는 사람에게 물었다.

“저 집 아가씨가 어디로 갔소?”
 그 사람이 투명스럽게 답했다.
 “아가씨인지 아줌씨인지, 그런 사람 난 모르요.”
 하인이 하릴없이 돌아가서 조문화에게 알렸다. 조문화 부자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딱 벌어진 채 서로 쳐다만 볼 뿐 아무 말도 못 했다.

- 조성기, 「창선감의록」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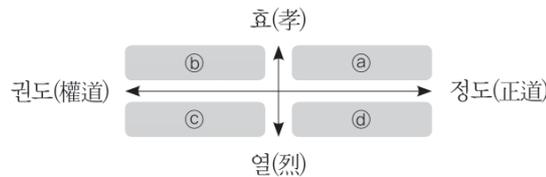
윤 시랑의 아들인 윤여옥과 진 공의 딸인 채경은 혼인을 약속한 사이이다. 어느 날 총계정에서 학 한 마리가 길게 울며 외롭게 날아가는 모습을 본 윤 시랑은 채경에게 이에 대한 시를 짓도록 하였다. 채경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아래와 같은 시를 지었다.

사람들 놀랄까 큰 울음은 그쳤지만
 삼청(三淸)*에 이를 날개 어이 없으리
 다만 왕자진*과 약속 있어
 밤마다 구산*에서 만리 밖을 그리네

- * 삼청: 도교에서, 신선이 사는 세 궁을 의미함.
- * 왕자진: 주나라의 태자로, 피리를 잘 불어 봉의 울음소리를 냈다고 함. 후에 신선이 되어 백학을 타고 하늘로 날아갔다고 전해짐.
- * 구산: 왕자진이 백학을 타고 신선이 되어 승천한 곳으로, 도를 닦아 신선이 되는 곳을 의미함.

보기

어떤 사안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는 상황을 고려하기 마련인데, 조선 시대에는 이를 ‘정도(正道)’와 ‘권도(權道)’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정도’란 ‘도(道)’를 행할 때 원칙을 지키며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하는 것을 ‘권도’라고 한다. 이때 권도는 단순히 상황 논리에 따라 원칙을 바꾸는 것이 아닌, 위기 상황에서 기지와 용기를 발휘하여 능동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명분과 도리를 잃지 않고 도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창선감의록」에서 진채경은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인 ‘효(孝)’와 남녀 간의 도리인 ‘열(烈)’을 실천하기 위해 정도와 권도의 선택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진채경이 보여 주는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인물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Final &
Readings

초식

6월의 무성격자를 보자마자 떠오른 작품이다. 사실 2022학년도 수완에 나왔던 지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수능이 어렵게 나온다면 이 지문이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추가했다.

의식의 흐름을 활용하면서, 부조리를 구성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글을 읽기를 권한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아버지가 세 번째 국회 의원 출마를 위해 다시 채식 시작한다. 가족들은 국회 의원에 출마할 때마다 채식을 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부친은 자신이 속해 있으면서 그렇게나 미워하던 한 세계가 머지않아 붕괴하리라는 희미한 예감의 공포 앞에, 오로지 떨고 있었던 것이다. 체면 불구하고 부친이 출마했던 것은 아마 그 때문인 듯하다. 그 멸망이 상말로 시계 무엇처럼 점차 느껴져서, 설령 일곱 번이고 여덟 번이고 재출마해야 하는 그런 기우가 설마 부친에게 눈곱만큼이나 있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부친의 유일한 이해자는 숙당(淑堂) 조문제(趙文濟) 선생이었다. 조 선생은 중학교 한문 선생으로, 두루미처럼 버쩍 마른 모습으로 시의 언덕바지에 살고 있었는데 그 양반의 말을 빌려 보면, 부친의 망발(출마)은 단지 젊었을 때 글깨나 좀 읽었다는 탓일 따름이고, 모든 난점은 ‘흐르는 세월’이 심판해 준다는 것이다.

세월도 세월이러니와 선량*에 대한 부친의 이런 엉뚱한 꿈이라든가 이를테면 그 준비라고 할 수 있는 ‘채식’ 같은 기묘한 방법은, 지금 곰곰 생각해 보니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다니엘서」에서부터 그 연유가 비롯한 성싶다. ‘채식’에 관한 것뿐 아니라 흥흥한 난세의 여러 조짐에 대해 그 책은 괴상한 꿈 얘기라든가 기괴한 짐승들을 무수히 등장시켜 공갈을 치고 있는데 ‘그 이[齒]는 철(鐵)이요, 발톱은 놋[銅]이며,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라는 끔찍한 구절까지 있는 것이다. 학대받는 어느 민족의 이중 삼중의 설움의 메시지다. 하지만 부친이 정말 「다니엘서」를 독파했는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부친은 홀로 무언가 유일한 것을 믿고 있는 듯하기는 했으나, 외할머니나 모친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반발 때문에 평생 절이나 교회 문턱을 피했고, 어쩌다 집 안에 종교적인 물건 — 이를테면 부적이라든가 찬송, 성경책이라든가 지등(紙燈) 따위가 보이기라도 하면 부리나케 그것을 어디엔가 감추어 버리곤 했으므로, 설마 당신이 방에 몰래 숨어서 ‘다니엘’을 읽어 치웠으리라고는 상상이 되지를 않는다. 하지만 ‘다니엘’의 그것과 꼭 같은 어이 없는 절구가, 허기와 오기와 무청중에 지친 부친의 유세장에서 번번이 흘러나오는 것을 나는 들었던 것이다.

“나를 사자 아가리에 처넣어 보시오! 펄펄 끓는 불 속에 나를 콧 던져 보시오! ㉠내한테 어디 평생 풀만을 먹여 보시오! 꼬떡도 안 할 것이오, 나는, 여러분! ……”

그렇다. 얼음이다. 만상이 타는 듯한 열화에 기갈 들러 오직 한 개의 통풍 구멍만을 찾아 허덕이는 한여름 대낮 같은 때 홀로 자전거 등받이에 서늘한 수정과 같은 거창한 물건을 싣고 달리면서 부친의 꿈은, 빼도 박도 못하게 그 결정체 속으로 스며들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나 출마할란다……” 하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을 때의 그 계면

찍은 웃음, 우는 듯한 눈, 경악에 찬 가족들의 힐난의 시선에 이윽고 조금씩 떨리기 시작하던 입술이 그것을 증명한다. 부친은 별식으로 모처럼 놓인 도미구이 접시를 한옆으로 슬그머니 밀어 놓고, 허탈한 얼굴로 시금치 접시로 젓가락을 가져갔다. 그것이 신호였다. 누이와 나는, 4년마다 오는 부친의 그 구닥다리 같은 흥역을 또 치르게 되나 부다 하고, 부지중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우리들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서광삼 무표’니 ‘서광삼 3표’니 하는 이웃이나 학교 동료들의 조석 간의 인사가 아니다. 그것은 선거 소동이 끝날 때마다 전 시의 오욕에 찬 익살맞은 조롱을 우리 집 위에만 폭삭 뒤집어씌우고도, 진실로 능글하고 의연하고 고해서 참으로 아름답기까지 해 보이는 부친의 배짱에 있었다. ㉡어쩐지 부친은 봄장마가 깨진 아스팔트 틈서리의 흙탕물을 튀기는 을씨년스런 한밤중에도 청명한 구름 속을 혼자 걷고 있는 듯했으며, 고독감에 몸을 떨며 내가 뒷간에 홀로 움치고 앉아 있을 때에도 그는 갓 벌어진 무슨 커다란 꽃봉오리 속에 의적이 파리를 틀고 있는 듯했던 것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아버지는 합동 유세장에서 친구 최 씨를 만나게 되고, 최 씨는 유세장에서 아버지의 과거와 관련된 일을 빌미로 난동을 부린다.

분명치는 않아도, 부친이 채식을 그만둔 것은 그 이후부터다. 돌아오는 길에 부친은 가장 그럴싸하게 당신의 얼굴이 크게 찍힌 선거 벽보를 북 찢어 구겨서 잡담 제하고 그것을 길가에 던져 버렸는데, 무슨 변화와 동요가 부친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채식을 폐하자 기뻐 날뛴 것은 물론 그 친척 참모들이다. 순대구이거나 날치, 가지미 같은 것이 상 위에 올라오면 그것은 짹짹 새에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것은 계면 찍다기보다 더러운 광경이었다. 부친은 글썽글썽해진 눈으로 가족들의 그런 왕성한 식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다. ㉢오랜만에 고기를 보니까 속이 꼬리꼬리하다……는 등 하는 친척들의 그 파렴치. 잘 씹어서…… 천천히…… 하고 주의를 소근거리는 모친의 낭만. 누이의 부어터진 얼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부친은 광 속에 자전거를 처박아 둔 채 운신을 안 했다.

얼음 운반은 물론 내가 대신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부친은 62세였다. 보름 남짓을 앞에 둔 선거일이 빨리빨리 지나갔다. 서광삼 무표, 서광삼 무표, 서광삼 무표…….

그동안에 단 하루, 부친은 밖을 나갔을 뿐이다.

㉣“너 나하고 좀 나가자”고 부친이 말했을 때, 또 발작이 시작되나 부다 하고 생각했다. 내가 자전거를 끌고 나오자 부친은 그 만두라고 고개를 흔들었다. 우리들이 터벅터벅 걸어서 찾아간 곳은, 시가에서도 훨씬 떨어진 번두리 언덕 뒤에 숨듯이 하고 텅그마니 서 있던 도살장이었다. 그 일대는 분지처럼 지대가 낮아

서, 잡초와 잡석과 황토가 작은 별판을 이루고 개흙 바람에 눕고 있었으며, 잿빛의 긴 콘크리트 담으로 도수장*은 네모지게, 철통 같이 에워싸여 있었다. 그 무렵 부친의 심경에 도사리고 있던 민족과 시국에 대한 비전이 겨우 이 정도의 황량한 풍경이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밖으로 보이는 것이라곤 올빼미 눈 같은 동그란 두 개의 창문 외에는, 감기 든 코처럼 사방이 막힌 도수장 건물에서 부친은 도대체 무엇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일까. ‘서광삼 기호 3번’의 플래카드 광목을 품에서 꺼내더니, 부친은 그것을 어깨에 두르고 건물로 다가갔다. 부친은 문을 두들겼다. 정문의 빗장이 빠지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다.

주인을 찾는다고 부친이 말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그가 말했다.

부친은 절을 하고, 무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열변을 토하는 부친 앞에서 광 하고 철문은 닫혀 버렸다…….

① 언덕바지로 돌아오자 부친은 잡초를 한 줌 훑어서 입에 넣고 그것을 질경질경 씹으면서, 무연히 눈앞의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르긴 하되 부친으로서는, 정육점의 고기를 거덜 내는 그 모든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비결은 거기서 모든 덩어리가 흘러나오는 도수장의 주인을 구워삶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한 식경이 지난 뒤에 부친은 다시 담 밑으로 다가 가서 그것을 두들겼으나, 이번에는 열리는가 하자 문은 닫혀 버렸다. 부친은 두말 않고 돌아서서 나더러 가자는 눈짓을 했다.

- 이제하, 「초식」

*선량: 뛰어난 인물을 뽑음, 또는 그렇게 뽑힌 인물. 국회 의원의 별칭.

*도수장: 고기를 얻기 위하여 소나 돼지 따위의 가축을 잡아 죽이는 곳. 도살장.

보기

「초식」은 폭력과 비순수로 표상화된 ‘육식’의 세계에 맞서려는 개인의 투쟁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초식」에서는 육식 세계의 삶의 논리에 따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더불어 이들은 낯고 부조리한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동력을 상실한 인물들로 형상화된다. 이런 의미에서 「초식」의 ‘아버지’가 출마할 때마다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선택하는 행위는 단순한 섭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 사회를 오랫동안 규율해 온 기존의 삶의 방식과 관습을 흔드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흥미로운 점은, 육식의 세계에 대한 맞섬의 한 방식으로 채택한 개인의 특정 행위가 종종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